

이 임 사

아주대학교 한 만 정



올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이 하시는 연구와 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고분자학회를 대과없이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덕분이었으며 임원진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회고하여 볼 때 “국제합성금속학회” 제12회 심포지움을 대한화학회, 물리학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해외학자 650명, 국내 250명이 참석, 성황리에 1주일간 개최하게 되었고, 이는 국내 고분자분야의 연구 성과를 세계에 발표 전시하는 뜻있는 행사였습니다.

국내 대학의 고분자공학과, 화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섬유공학과 등을 대상으로 한 “고분자과학” 교재의 저술 및 발간을 위하여 조의환박사를 편집위원장으로 정하고 본 학회회원 150여명의 집필진을 구성하여 현재 원고를 집필중에 있으며 본 교재가 발간되면 후학들의 고분자과학교육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내 행사로서는 본 학회에서 종래에 개최하여 오던 각종 행사 이외에 “플라스틱 실용화 기술포럼”이라는 기술훈련과정을 한국 플라스틱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합성수지가공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술자들에게 이론과 가공원리를 교수함으로써 합성수지 가공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Polymer지의 내용을 “Materials Science Citation Index”에 수록하게 되었으며 논문 발표 제목을 “Polymer Contents”에 게재하게 되어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국제적으로 전시하는 효과와 동시에 그 위상을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IUPAC MACRO SEOUL '96”을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금년 5월에 호암생활관에서 개최할 제2회 한·중 고분자 심포지움도 차질없이 준비되어 중국학자 28명이 내한하게 되어 있으며 한·중 고분자 학술교류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학회일을 실제로 담당하였던 임원 및 간사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오며 특히 학회일을 도맡아 이끌어오신 임승순 전무이사의 적극적인 활동에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